

결핵퇴치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각국의 홍보대사

지난 2011년 12월 조지아, 가나, 요르단, 네팔, 파키스탄, 페루, 남아공, 수단에서 온 아홉 명의 유명인들이 제네바에 모여 국가 결핵 홍보대사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한 관점과 각자의 경험을 나누었다.

Stop TB Partnership은 국제 적십자적신월사연맹과 함께 공동 주최한 이번 방문을 시리즈 영상물로 기록하고 그 가운데 하나를 공개했다.

‘결핵에 맞서 행동하는 투사들’이란 제목의 이 영상은, 이들의 뒤를 따르며 제네바의 워크샵에 참석해 결핵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를 논의하고 이탈리아의 치료 프로그램을 방문하는 모습을 담았다.

워크샵에 참석한 친선대사들은 국가 결핵 홍보대사로서 갖춰야 할 것들에 대한 견해와 경험을 공유했다. 그들 모두는 대중에 대한 평판, 카리스마, 누구에게나 친근함, 결핵의 원인에 대한 강한 관심과 믿음 등이 꼭 필요한 조건이라는 데 동의했다. 그들은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에게 결핵에 대해 널리 알리는 것, 특히 결핵을 앓는 많은 사람들이 소외 계층에 속하고, 이 질병에 걸리는 누구든 소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라고 여겼다.

일정이 끝난 후, 홍보대사들은 밀라노 롬바르디 지역 정부의 관계자들에게 세계 결핵퇴치운동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지원의 시급성에 대해 소개했다. 그들의 여정은 토리노까지 이어졌으며, 그곳에서 결핵 치료 프로그램 시설을 방문했다. 이 프로그램은 Imp.Ac.T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NGO 단체 Gruppo Abele와 이탈리아 적십자사가 밀접히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민자, 약물복용자들 등을 대상으로 결핵 및 에이즈 검사를 확대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WHO, 다제내성 결핵이 사상 최고치에 이르렀다고 밝혀

새로운 WHO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다제내성 결핵의 발생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WHO의 회보에 실린 이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전체 결핵 신환 가운데 3.4%, 기존 치료환자 가운데 20%에서 약제내성이 발견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에서 결핵 발생 건 가운데 다제내성결핵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러시아 연방 무르만스크 주의 결핵 신환자 가운데 30% 가까이, 그리고 몰도바 공화국의 기존 치료환자 65%가 다제내성 결핵을 앓고 있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다제내성 결핵 문제점에 대해 대부분 완료된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결핵의 위험이 특히 심각한 많은 나라에 대한 자료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15년 간의 집중적인 노력 덕으로, 현재 우리는 전 세계 국가들의 2/3에 대해 수준 높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WHO Stop TB 부서의 Dr Matteo Zignol이 말했다.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많은 나라들, 특히 인도와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처럼 결핵의 위험이 높은 나라에 대한 자료 부족으로 이 문제의 전체 크기에 대해 알지 못한다.”



이 연구는 다제내성 결핵 발생 건 가운데 광범위내성 결핵의 비중에 대한 57개 국가 자료도 포함하고 있다. 모든 국가들로부터 종합된 자료는 다제내성 결핵 발생 가운데 광범위 내성 결핵이 10% 가까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